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께서 해 받으신 후, 즉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다시 살아나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하였다.

신약성경은 이 일에 대해 많은 증거들을 제시한다. 복음서들의 첫 번째 공통적 증거는 빈 무덤의 증거이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 그것은 주일 새벽에 그 무덤에 간 여자들이 확인했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한 바이었다. 빈 무덤은 확실하였고, 이것은 부활 외에는 다른 설명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또 여자들은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고 또 돌아오는 길에 직접 주님을 뵈었고 그 발을 만졌으며, 막달라 마리아가 그를 뵈었고, 또 시골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를 만났고, 열한 제자들이 보았다. 또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여러 날 그를 보았다. 일곱 제자들은 어느 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바닷가에서 그가 차려주신 생선과 떡을 먹기도 했다. 사복음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서신도 부활의 증인들을 언급했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보았고 야고보가 보았고 또 오백여 형제들이 동시에 보았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승천과 그의 재림의 약속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승천도, 그의 재림도 헛된 이야기와 소망일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증인들이 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도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들이 거짓말을 위해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했다는 것인가? 기독교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종교인가? 성경은 거짓말을 마귀의 일이며 지옥 같 큰 죄악이라고 말한다. 기독교는 결코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진실한 증인들이었고 그들은 순교의 피로 자기들의 증언한 바를 확증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고 말했다.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는 믿음, 곧 부활 신앙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 예수께서는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다. 그가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증거하였지만, 그가 죽고 마셨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까지 다 증거한 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기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다(요 20:30-31).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그의 부활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선언]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하였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代贖)하신 구주이심을 믿게 된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代贖)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해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주신다. 죄사함과 칭의(稱義)는 기독교 복음 진리의 핵심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죄악과 불법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고 이 세상에서 도덕 질서는 무너진 것 같았다. 가롯 유다의 배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와 음모, 빌라도의 불의하고 비겁한 판결, 민중의 무지와 소요가 이긴 것 같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모든 불의와 죄를 이기셨다. 그것은 의의 승리이었다. 또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한 죄사함과 칭의의 선언이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39-42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증거되셨다는 것과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38-39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그는 로마서 4:25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15:17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사죄와 칭의의 확증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代贖)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가 허구(虛構)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장차 그와 같이 영광스런 몸으로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을 소망하게 된다. 죄의 값은 죽음이며, 사죄와 칭의의 결과는 부활과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보장이 된다. 그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고전 15:20). 그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확증이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이다. 요한복음 6:40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2에서 그리스도인이 소망하고 있는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증거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3-4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으나 제3일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신약성경에 근거하여 확신하자. 또 그 믿음에 근거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시며 우리도 장차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고 소망하자.